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I

(요 9:4-12)

이종윤 원로목사



본문은 연속적인 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이 뜨게 되었다고 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 일곱 가지의 기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아둘 책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건만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에 일곱 가지의 기적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가지의 기적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으로 본문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첫 번째 발견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요 9:1)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만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맹인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소망을 완전히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는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손 벌려 빌어먹는 일 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신 것이 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필이면 많은 장소 중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의도적으로 원했거나 계획적으로 그 자리를 택해 앉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다만 구걸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도 못했고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의도적으로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그 분이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5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

움을 비취주심으로 인해서 어두움을 그가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광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던 것도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도록 내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도록 세우시고 주님이 나를 발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2. 재발견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요 9:38)

이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고마운 일인데 누가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묻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그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눈을 뜬 맹인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침을 뱉어 진흙에 비벼 내 눈에 발라주시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뜨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맹인이 이야기 한 전부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묻는 질문에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말씀 속에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예수님께 두 번째 발견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캄캄한 중에 죄악 가운데 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그때에 예수님께 한 번 발견되어야 합니다. 거지처럼, 불쌍한 맹인처럼 그렇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여기에 나왔고 주님에 의해 눈을 뗐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맹인은 예수님께 두 번째 발견이 될 때에 비로소 그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에게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으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두 번째 발견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발견이 되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발견을 받게 되면 입에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 두 번째 발견이 된 사람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음 주 계속)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 총회 통해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봉사단'에 전달

우리 교회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이 드린 헌금 중 1차로 천만 원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봉사단에 전달하였으며, 이번 주일 지난 후 최종 집계된 나머지 헌금을 2차로 송금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모아진 헌금은 18,405,000원이다.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봉사단은 한국교회 봉사단(이하 한교봉, 단장 : 김태영)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표회장 : 주승중)가 함께 꾸린 단체로 지난 9일부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 접경도시 시레트에서

구호사역을 펼치고 있다.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은 노인인 여성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 봉사단은 우크라이나 현지 한인선교사협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도 구호품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속히 깃들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된다.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사역 개시



다음은 '한국기독교공보' 3월 10일자에 실린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봉사단'의 사역 기사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는 성도들은 '한국기독교공보' <https://pckworld.com/>을 참조하기 바란다. (편집부)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봉사단'이 지난 9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 접경도시 시레트에서 1차 구호 사역을 펼쳤다.

이번 봉사단과 협력하는 루마니아 한인선교사협의회(회장 : 이권철) 소속 선교사 등은 하루 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동북부도시 수체아바로 이동, 구호 사역을 위한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우크라이나 전쟁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재성 선교사(우크라이나 한인선교사협의회장)도 합류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봉사단은 시레트 국경 지역에서 첫 사역을 전개했다. 검문소 앞에는 국제구호기구와 지역자선단체, 종교 단체 등이 설치한 부스가 100M 가량 줄지어 피란민들을 맞았고, 봉사단도 현지 교회연합회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위로와 격려, 환영의 인

사를 했다.

(중략)

봉사단은 10일(현지시각)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란민들을 상대로 2차 구호 사역을 전개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보낸다. 전달 지역은 루마니아 국경 너머 인근 도시인 체르니우치와 중서부 도시인 빈닌차다. 특별히 빈닌차는 지난 6일 러시아의 로켓 공격으로 공방이 파괴되는 등 최근 침공이 시작된 곳으로, 현지에서는 생존에 필수적인 구급약과 방한용품, 비상식량 등을 긴급히 요청한 상태다.

(중략)

한교봉 사무총장 천영철 목사는 "우크라이나 국민 100만 명이 난민 형태로 인접국으로 대피했다면, 반대로 여전히 3900만 명이 전쟁터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피란민들을 환대하는 것만큼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봉사단 활동이 마중물이 되어 우크라이나를 향한 한국교회의 마음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 사순절 캠페인



1. 회개와 기도의 시간



2. 한 끼의 식사, 주님의 몫으로! 한 잔의 차, 이웃의 몫으로!



3. 문화 절제 · 탄소 금식



4. 하나님의 복음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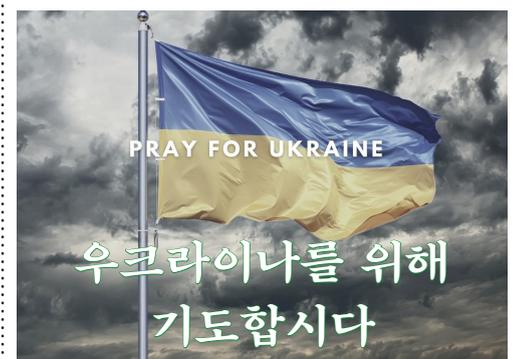
권사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

오늘 찬양예배는 권사회(회장 : 박미혜 권사)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서회숙 권사의 지휘로 권사회 임·직원들의 특별찬양이 있을 예정이다.

교회의 아픔속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회복에 앞장 선 권사회의 헌신예배에 권사와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기독교 교육의 이해 - 아이들의 이해, 교육 방법, 소통법

교회 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 좋은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과 소통이 잘 되는 교사들을 원합니다.

1. 아이들에 대한 이해

교사들은 공과 시간에 만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적 이해, 심리적 이해, 문화적 이해를 해야 합니다.

(1) 지적 이해

아이들은 지적인 면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이 지적인 면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소통할 수 있고 눈높이에 맞춰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장 피아제는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함에 있어서 감각운동기(0-2세), 전조작기 단계(2-7세), 구체적 조작기 단계(7-11세), 형식적 조작기 단계(11-15세)를 거치면서 뇌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감각운동과 느낌만을 가졌다가 점차 언어를 시작하게 되고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는 자기중심적 사고만을 유지하다가 점차 자기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시작하며 추리력 및 예측력이 발달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지적 발달 단계를 잘 이해하며 때를 따라 성경 듣기, 묵상, 암송 교육 등을 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항상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 심리적 이해

심리는 감정입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성장하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에릭 에릭슨은 아이들의 심리 발달 단계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8단계로 구분합니다.

(3) 문화적 이해

문화는 아이들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할 때 그들이 공유하는 것이 아이들의 문화입니다. 아이들의 문화는 집단의 과반을 넘길 때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할 때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과반만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큐티를 할 때 반 아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시키지 말고 일단 반 수 정도만 하게 하면 결국 큐티가 그 반의 문화가 됩니다.

교사들은 항상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생각해야 하며 아이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문화를 해석하기 위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김성중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2. 영역에 따른 교육 방법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되 영역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하여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관계적 영역, 실천적 영역, 통합적 영역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인지적 영역은 강의나 성경공부, 스토리텔링, 성경 암송 등이 있는데 성경 암송은 특히 유년부 때 하면 장기기억 장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서적 영역은 스스로 체험하며 습득하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서로 삶의 사례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적 영역은 서로 토론, 협동 학습, 집단 탐구, 인간 관계훈련법, 역할극 등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것은 초등부 이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천적 영역은 중등부 이상에서 할 수 있으며 선교 여행, 봉사 활동, 봉사수련회 등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영역은 인지, 정서, 관계, 실천의 영역이 서로 연결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배, 현장 참여, 통합 교수법, 센터 학습법 등이 있는데 센터 학습은 절기에 하면 좋습니다.

3.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

(1) 이야기 듣기

아이들과의 대화에 10대 90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교사는 10%만 말하고 아이들의 얘기를 90%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이고 비언어적인 표현(밝은 표현)을 하고 잔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아이들이 얘기할 때는 공감적인 추임새를 잘 넣어줘야 합니다.

(2) 칭찬 하기

아이들을 칭찬할 때는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도 칭찬거리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런던이라고 대답했어도 “아니야, 틀렸어” 하기 보다는 “어머 너는 런던이라는 도시도 알고 있구나” 할 때 아이들이 거기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격려를 받게 됩니다.

(3) 비교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

절대 평가는 한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성경 암송을 안 해왔는데 이번 주에 해왔다면 이것을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칭찬하는 것이 절대 평가입니다.

(4) 부정적인 피드백 - 나 메시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는 특히 나 메시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 메시지는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이들이 공과 시간에 다른 짓을 할 때 “너는 왜 선생님을 보지 않니?” 한다면 이것은 너 메시지로 효과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럴 때는 “선생님은 내가 가르칠 때 내가 다른 데를 보면 내가 집중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잘 보면 선생님은 신이 나서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거 같아”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 등을 솔직히 표현하는 나 메시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긍정적인 피드백

아이들이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먼저 아이들에게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칭찬부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아이들이 공과시간에 졸고 있으면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잤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에 왔구나” 한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책망으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6)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말의 형식

아이들은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문장을 짧게 끊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는 다양하게 잡아서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미있고 빠르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공통관심사 찾기

아이들과 교사와 공통관심사가 있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관심사는 질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찾는 것이 좋습니다.

(8) SNS 활용

교사들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최신 이모티콘을 활용하면 아이들과 소통이 더 잘됩니다.

(9) 포스트잇 응원 메모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힘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사람이야”, “너는 최고의 학생이야” 이런 내용을 미리 포스트잇에 써서 성경책이나 주보나 가방에 선물처럼 붙여준다면 아이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교회학교에서 귀한 사역을 하시는 교사님들께서 이 강의를 통하여 아이들을 좀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며 효과적인 교육을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약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옥준용 장하랑 최하학 이강현
유성근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규 소령

2022 성경암송대회

2022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리는 다음과 같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일시 : 11.12(토) 일반부 본선
11.13(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1장-8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주차 안내

교회의 정상화 및 방역단계가 완화된에 따라 예배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주차를 위해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차 원칙
 - 장기(종일)주차 : 지상 1층, 지하 3층 (대상 : 직원, 교역자, 종일 봉사자)
 - 예배 시 주차(각 예배시간) : 지하 1, 2층 (찬양예배 제외)
 - * 지하 1, 2층 2열 주차 앞 열 차량은 예배 후 반드시 출차(또는 이동)하여야 한다.
2. 주차 방법
 - ① 안쪽부터 주차하기
 - ② 건물 기둥 중심으로 백미러가 닿을 듯 주차하기.
 - ③ 주차라인 중앙에 주차하기

- 2022 순례자 캠페인 -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꾼다



순례자는 2022년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꾼다'를 슬로건으로 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 참여 방법
 1. 내가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생활에 관한 글이나 인증 샷
 2. 플로깅(plogging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환경운동), 비치코밍(beachcombing 해변 쓰레기줍기) 등 MZ세대의 친환경운동 인증 샷
- * 참여 기간 2022년 4월 22일(지구의 날)까지
- * 참여해 주신 성도들에게 소정의 친환경 제품을 드립니다.
- * 보내는 곳
순례자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동정

- 떡 제공 : 6교구 김성주집사 · 한주희 집사 가정 (자녀 회복을 감사하며)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28일	월	삿 13-16		욘 35-42	
3월29일	화	삿 17-19		시 1-11	
3월30일	수	삿 20-21		시 12-21	
3월31일	목	룻 1-4		시 22-33	
4월1일	금	삼상 1-3		시 34-40	
4월2일	토	삼상 4-8		시 41-50	
4월3일	주일	삼상 9-12		시 51-65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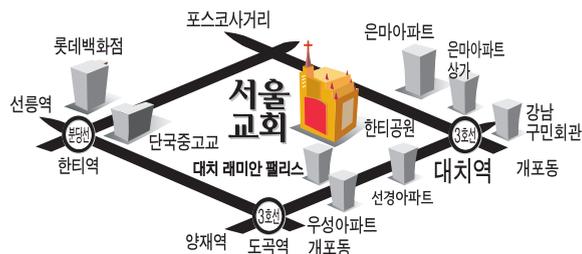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넷째 주간에 주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교훈을 더욱 실천하게 하소서.
2. 수술과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선교지 교회를 돌보아 주소서.
3.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에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향한 진전이 있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